

“Ryu, S존 구석구석 칠했다”

몬토요 감독, 류현진 첫 라이브피칭 칭찬
한국인 최다 세 번째 개막전 선발 기대감



류현진

‘에이스’가 가지개를 쳐고 있다.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닐 수밖에 없음에도 사령탑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 준비가 순조로운 모양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토론토 스프링캠프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 류현진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첫 라이브피칭을 소화했다. 타자를 세우고 실전처럼 던지는 방식이다. 앞서 50구 볼펜피칭도 마쳤으니 이제 타자 앞에서 감각을 조절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타석에는 조지 스프링어, 마커스 시미언 등 토론토가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타자들이 들어섰다. 이어 보 비넷, 라우디 텔레스도 류현진과 승부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류현진의 투구를 유심히 지켜봤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이라며 엄지를 세웠다. 이어 “자신의 공을 잘 던졌고,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칠했다”고 칭찬했다.

류현진의 팀 내 입지는 흔들림 없는 에이스 그 자체다. 피트 워커 투수코치도 캠프에 합류한 류현진을 보고 “지난해보다 몸이 더 좋아졌다. 비시즌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칭찬했다. 감독과 투수코치 모두 에이스의 기를 확실히 세워주고 있다.

토론토는 올 시즌 야수진 보강에 열을 올렸지만 선발 마운드에는 뚜렷한 보강요소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 2.69로 호투한 류현진의 어깨가 무겁다.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개막전 선발 등판도 유력하다. 토론토는 4월 2일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한국인 투수가 개막전에 선발로 나선 것은 박찬호(2001~2002년)와 류현진(2019~2020년) 뿐이다. 류현진이 올해도 개막전 마운드에 서면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넘어서는 영예가 따라온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최익래 기자

“텍사스, 이닝 끌어줄 투수 필요”
ML 도전 양현중 주목한 美 매체

양현중

양현중(33·텍사스 레인저스)은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스포츠링캠프 초청선수 자격을 얻은 양현중이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구단이 준비한 스케줄을 차근차근 소화하며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날만 손꼽고 있다.

양현중은 현재 스프링캠프에 초청된 투수들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텍사스 입단 확정 직후 현지 언론은 양현중에게 투수들 중 유일하게 ‘Good’ 평가를 내렸다. 현지 언론의 후호적 평가는 최근까지 거듭되고 있다.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25일(한국시간) 텍사스의 개막전 로스터를 예상하는 특집 기사를 기고하며 양현중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갈 유력한 선수 5명 중 한 명은 양현중”이라고 했다.

텍사스는 4월 2일부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개막 시리즈에서 맞붙는다. 텍사스는 캔자스시티와 원정 3연전을 마친 뒤 6일 홈 개막전을 치른다. 선발투수 후보군에 올라있는 양현중의 개막 로스터 합류 여부는 단연 초미의 관심사다.

디 애슬레틱은 양현중이 KBO리그에서 오랜 기간 건강하게 긴 이닝을 소화한 사실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의 기록을 나열하며 “양현중은 2014년 171.1이닝을 던진 뒤 2020년까지 꾸준히 그 이상의 이닝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텍사스는 현재 이닝을 길게 끌어줄 투수가 필요하다. (양현중이) 건강만 하다면, 첫 번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래킹서 키네틱으로... “이젠 예측 야구다”

차명석 단장, 데이터야구 큰 관심
트랙맨·포터블랩소드 등 장비 투자
키네틱 장비로 예측 데이터 수집
LG 계열사서도 데이터 혁명 지원

2021년 KBO리그에서 데이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10개 구단 모두 데이터 분석팀에 적극 투자하면서 그라운드 밖 경쟁도 치열해졌다. LG 트윈스는 2000년대 후반 ‘신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숫자와 익숙한 팀이었다. 하지만 트래킹 데이터 등 새로운 장비 및 시스템의 도입은 다소 더뎠다. 늦은 만큼 투자는 더욱 공격적이다. 최고위층인 이규홍 LG스포츠 사장, 차명석 야구단장부터 숫자에 열려있다. 신연봉제에서 트래킹, 이제는 키네틱 데이터까지 살피고 있다. LG의 3번째 데이터 혁명을 소개한다.

●대표이사부터 숫자 탐독 삼매경

차 단장은 자신의 야구관을 ‘월드 스퀘어’로 정의한다. 최근 데이터 트렌드의 근간인 야구의 물리학을 20여 년 전부터 공부하는 등 1세대로 꼽히는 인물에게 의아했다.

차 단장은 “세이버메트릭스들에게 월드 스퀘어의 방식이 맞다고 얘기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데이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전부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가만 보면 공부를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방어기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언가를 반박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그는



LG도 현대야구의 트렌드에 맞춰 데이터 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관련 첨단장비의 도입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는 상당하다. LG 데이터분석팀의 회의 장면(왼쪽)과 트랙맨 장비를 활용한 볼펜피칭 모습. 사진제공 | LG 트윈스

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차 단장이 데이터공부를 처음 시작한 계기도 바로 이 이유다.

이 때문에 LG 1·2군 코칭스태프는 누구보다 열심히 데이터를 탐독한다. 월 1회씩 이천에서 2군 코칭스태프가 모여 육성의 방향성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로 리뷰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차 단장은 이 자리에 이 사장을 모시고 간다. 이 사장도 형식적 관심 수준이 아니라 직접 공부하며 코칭스태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한다. 단장 주재 회의는 타구 단에도 당연한 매뉴얼인데, 대표이사까지 나서서 것은 낯선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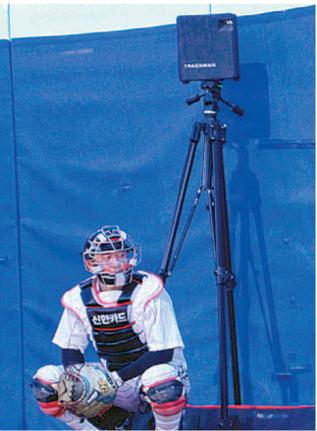
●시즌3, 경기 결과를 넘어 미래 예측까지

기술의 바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인적 투자와 장비 투자다. LG 데이터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돼있다. 선수 출신

7명, 비선수 출신 5명이다. 비선수 출신은 트래킹 데이터 분석 및 미래예측을 한다. 나열된 숫자를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visualization)를 전달하는 이도 있다. 차 단장은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모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에 완성은 없다. 하나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2019년 도입된 트랙맨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포터블랩소드 장비까지 추가했다. 올해도 대대적 보강을 준비 중이다. 선수들의 동작을 찍은 동영상은 3D 처리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특정 폼을 영상으로 담을 때 모션이 하나하나 수치화될 전망이다.

최근 메이저리그의 데이터 분석 추세는 공을 쫓는 ‘트래킹’에서 동작 하나하



LG도 현대야구의 트렌드에 맞춰 데이터 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관련 첨단장비의 도입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는 상당하다. LG 데이터분석팀의 회의 장면(왼쪽)과 트랙맨 장비를 활용한 볼펜피칭 모습. 사진제공 | LG 트윈스

나를 분석하는 ‘키네틱’으로 옮겨가고 있다. LG는 키네틱 데이터를 수집해 지금까지의 한 경기 한 경기 결과를 넘어 미래예측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2월 중순 LG 스프링캠프를 찾아 데이터 분석 수준에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야구단의 이런 변화에 공감하고 힘을 싣고 있다. 노석기 LG 데이터분석팀장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엔지니어링 능력은 없다. 이를 LG CNS와 사이언스파크, AI 연구원 등 계열사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규홍 사장님과 차명석 단장님이 바로 뛰며 지원을 보내고 계신다”며 “2019년이 도입과 정착, 2020년이 발전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대대적 업그레이드에 나설 차례”라고 설명했다.

이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낮게’ 편견 깬 최동환, ‘빠르게’ 편견 깬 켈리

정우영 성공, 선수들 데이터 교감
임찬규, 매년 2시간씩 데이터 탐독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외부에서 이를 납득하기 위해선 ‘결과’가 필수다. LG 트윈스는 본격적인 최신 데이터 장비 도입 3번째 시즌을 맞은 가운데, 이미 성공사례는 수도 많다. 차명석 단장과 노석기 데이터분석팀장의 프런트 직원들 구슬을 정리해 숫자가 바꾼 선수들을 소개한다.

●정우영, 숫자에 확신 준 막내

“우리가 운이 좋았다. 정우영이 입단한 2019년 트랙맨 장비를 도입했다. 정우영은 트래킹 장비가 사랑하는 선수다. 연습경기 때까지만 해도 구속은 140km대 초중반이었는데 육안으로도 그보다

좋은 공을 가진 게 느껴졌다. 트랙맨 데이터를 보니 수평 무브먼트가 리그 최상위 수준이었다. 싱커가 타자 몸쪽으로 쭉 떨어지니 땅볼 유도에 능했다. 그리고 기대대로 1군에서 성적을 냈다. 정우영의 성공으로 선수들도 데이터에 교감하기 시작했다.”

●임찬규, 거르지 않은 2시간의 힘

“임찬규는 익히 알려진 대로 속구와 체인지업을 같은 위치에서 던지는 ‘피치 터널링’을 완벽히 터득했다. 지난해 연습경기 때 박용택이 다른 팔높이를 지적했고 초고속카메라로 직접 확인했다. 찬규는 우리를 가장 귀찮게 한다. 등판 전 매일 2시간씩 경기분석 데이터를 살핀다. 가령 ‘A 타자는 속구에 약하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투수의 어떤 속구를 상대해 안 좋은 결과를 냈는지 따져본다. 애런 브룩스(KIA 타이거



최동환

켈리

즈)의 속구에 약하다고 자신의 속구에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때문에 매일 2시간씩 데이터를 탐독하며 자신에 맞는 피치 디자인을 한 채 마운드에 오른다.”

●최동환, 20년 간둔 ‘낮게’ 편견 깨다

“2009년 입단해 10년 내내 제구와 싸웠다. 공은 좋는데 낮게 들어오지 않았다. 낮게 던지는데 몰두하며 밸런스도 깨졌다. 데이터분석팀에서 한참 고민했는데 구속, 수직 무브먼트, 익스텐션 모두 리그 최상위권이란 지표를 확인했다. 수직 무브먼트가 5cm 이상이고 익스텐션

은 2m를 넘긴다. 이정도면 굳이 낮게 던질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높게 던지면 파울이나 헛스윙이 많아진다.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갑작스런 공이 가운데로 형성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적은 좋아졌다. 편견을 깬 용기를 칭찬하고 싶다.”

●켈리, “네 커브는 내 공인가?”

“처음 KBO리그에 왔을 때 속구 피안타율이 너무 높았다. 커브 비율을 늘리자고 제안하자 ‘네가 뭘데’라는 표정으로 황당해했다. 결국 속구 구사율을 높게 유지했다. 또 미팅을 했다. 자신은 속구로 카운트를 잡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던진다고 하더라. 커브보다 속구 구사율을 늘려 투구수를 줄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물었다. ‘네 커브는 내 공인가?’ 커브를 던져 성적이 나면 속구와 커브 모두 켈리의 자부심이 된다. 왜 속구에만 자부심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커브 구사율이 늘었고, 장수 외인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천 | 최익래 기자

노석기 팀장 “장인? 난 숫자와 사람의 통역”

(데이터분석)

24년 데이터 분석한 숫자 전문가
“데이터 100% 전달하는게 내 임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급 데이터를 얻더라도 낱것의 숫자(law data)를 대변에 이해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데이터를 실제로 접목해야 하는 선수와 코칭스태프에게 숫자를 가공해 ‘시각화’해줄 인력이 필수다. 한국야구 데이터 1세대로 꼽히는 노석기 LG 트윈스 데이터분석팀장(50)의 생각도 비슷했다. 노 팀장이 스스로를 ‘장인’, ‘데이터 1세대’ 등의 호칭 대신 ‘통역사’로 정의하는 이유다.

1만 시간의 법칙.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매일 3시간씩 10년을 훈련하면 1만 시간이 걸리는데, 이쯤 숙련된 이들은 우수한 성과를 낸다는 의미다. 이 기준대로라면 노 팀장은 “7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할 만한 케이스다. 1997년 LG 전력 분석팀에 입사해 2003년 SK 와이번스로 이적했다. SK 왕조의 일원으로 활약한 뒤 2012년 진정 LG에 돌아왔고, 현재 데이터분석팀장을 역임 중이다.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어느새 24년째, 김정준 신세계 전력분석팀장과 더불어 KBO리그에서 가장 먼저 데이터를 체계화한 인물로 꼽힌다. 수기에 의존했던 1990년대와 각종 첨단장비가 도입된 지금을 모



노석기 팀장

두 경험했기에 의미가 크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전력분석원은 1군 5~6명이 전부였다. 2군 기록은 체크하기도 어려웠다. 선배들은 모든 기록을 수기로 기록했다. 선배들의 고생이 정말 상당했을 것이다. 다만 3시간 넘는 경기에서 한두 개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오류가 쌓이면 데이터는 크게 달라진다. 입사 첫해 LG가 경기분석 시스템을 리그 최초로 도입했다. 투수의 구질, 코스, 주자상황을 분석하는 기본적 프로그램이었다. 수작업 시대에서 전산화, 자동화로 넘어가는 첫해였다.”

아무리 좋은 숫자를 수집해도 이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노 팀장도 스스로를 통역사로 정의했다. 그는 “데이터는 외부에서 선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거듭 발전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언어로서의 데이터’가 있다. 전력분석원은 그 통역사다. 전력분석원이 타석에 들어서거나 마운드에 오르는 게 아니다.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을 지를 외부에 100%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LG는 매주 감독과 파트별 코치, 프런트 직원들이 데이터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한다. 선수들도 이제는 데이터분석실의 문을 여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들 사이의 매개체인 숫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다듬기 위해 LG 데이터분석실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다. 이천 | 최익래 기자